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활용한 연구

정 승 철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활용한 연구

정 승 철

(제주평화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활용한 연구

▶▶▶ 목차

I. 서론	8
II. 다양한 지표로 살펴본 미중 힘의 격차 변화	10
III. 미중관계 변화가 남과 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1990-2021)	12
IV.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본 미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19
V.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중-한과 미중-북 관계 (2018-2022)	28
VI. 요약 및 결론	34
참고문헌	35

오늘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두 강대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지역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인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두 국가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동맹국이었으나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는 북핵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국가는 언제든지 서로 간의 갈등에 인해 상대방 국가들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연 미중 간 갈등/협력 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간은 1990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할 것이며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양상은 언론 기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인 GDELT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와 더불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분석 결과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대중여론, 미국 집권당, 미국의 대중무역 흑자량, 미중 간 힘의 격차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남북관계에는 미중관계의 긍정/부정 여부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힘의 변화에 주목하여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미중관계, 남북관계, 빅데이터, 통계분석, 텍스트 분석

I. 서론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1990년대에만 해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중국은 아직 미국에 견줄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2001년과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인해 10여 년 이상 중동에서 막대한 양의 전비를 지출하게 된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은 다시 한번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국력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함으로써 한 단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다시 한번 미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성장하였다. 비록 2010년대 후반을 거치며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타격을 덜 받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다시 한번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미국의 패권은 계속해서 기울어 간 반면 중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마침내 우리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는 마침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두 강대국 간에 단순히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세력전이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패권국 간의 경쟁, 나아가 힘의 역학구조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경험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쟁 이후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 역시 1961년 우호조약을 맺은 이래 현재까지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각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북한의 안보상황은 두 강대국 간의 관계와 힘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과연 냉전의 종식 이후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에 의해 어떤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긍정(부정)적인 미중관계는 남북관계에도 긍

정(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상관관계가 없는지 등에 대해 기존 문헌과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탈냉전 시대 지난 30여 년간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국과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IV장에서는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미중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 한국의 대북 자세, 북한의 대남 자세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IV장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V장에서는 최근 5년간 미중한(美中韓)과 미중북(美中北) 사이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와 미중관계의 영향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도록 하겠다.

II. 다양한 지표로 살펴본 미중 힘의 격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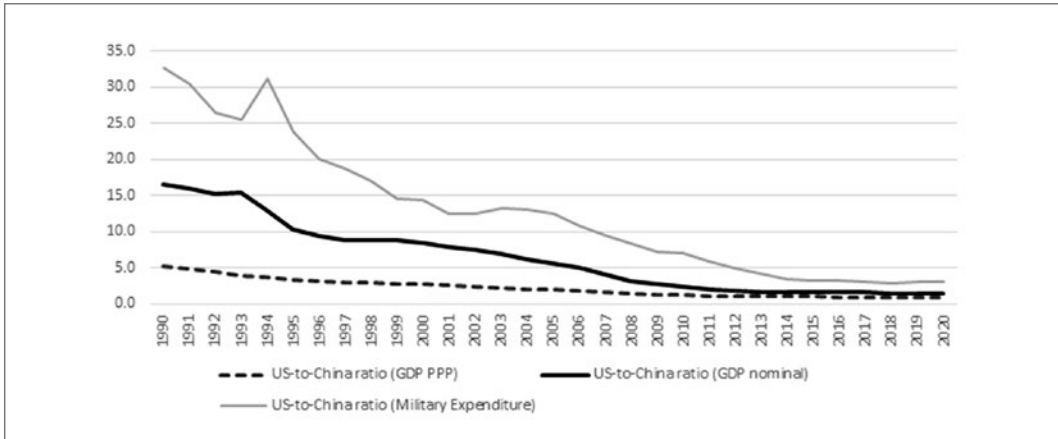


그림1. 지표별 미중 간 힘의 격차 변화 양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은 마침내 2010년대 이르러 세계최대무역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2021년 약 30여 년에 걸쳐 중국의 경제규모는 40.4배, 총무역량은 28.8배 상승하였다. 그 결과 미중 간 명목(nominal) 경제규모 비율(US-to-China ratio)은 1990년 16.2에서 2020년 1.4로 줄었다. 미중 간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경제규모 비율의 경우 1990년 5.4에서 0.9로 줄었다. 특히 2017년부터 그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며 중국이 구매력 기준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비지출 규모는 미중 간 비율이 1990년 32.8에서 2020년 3.1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미중 간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참조)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대개 신흥 도전국가의 국력이 쇠퇴하는 기존 강대국 국력의 80% 수준에 이르렀을 때 동등함(parity)이 시작되며 그 상태는 신흥 도전국가의 국력이 기존 강대국 국력의 120% 이상으로 성장하였을 때 끝난다고 본다(Rauch 2017, 646). 이 기준으로 현재 미중 간 힘의 격차를 살펴보면 구매력 기준 경제규모는 (중국이 앞선) 동등한 상태이지만 명목 경제규모와 군비지출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두 국가가 동등한 상태가 아니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패권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경제·군사적 힘을 지니고 있을때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Gilpin 1981). 하지만 수정주의적인 신흥국가가 패권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군사적 힘을 지니게 되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Organski and Kugler 1980). 물론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국의 지위가 옮겨갔을때처럼) 평화로운 세력전이 사례도 인류역사상 있었지만 세력전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으며 미중의 경우도 이와같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Allison 2017a).

한편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에 의하면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본다(Waltz 1979). 어느 한쪽이 전쟁을 시작해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미중 간에 근시일 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후술할) 최근 미중 간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고려할 때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는 갈등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미중관계 변화가 남과 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990-2021)

1.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전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1990년대 경제호황을 거치며 단극체제를 강화해 나가던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된다. 우선 2000년대 초반 들어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경제 호황이 끝났다. 이와 동시에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며 정부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미국은 두 전쟁 모두에서 빠른 군사적 승리를 성취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각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게릴라 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크게 휘청였다. 이러한 표면적인 사건 외에도 미국은 2000년대부터 매년 대중국 무역적자량이 큰폭으로 늘면서 전체 무역적자 규모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미국경제의 쇠퇴에는 구조적인 원인도 작용하였다.

같은 시기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전략을 통해 중국경제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어서 2010년대에는 마침내 세계최대무역국가(수출로는 1위, 수입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등극하였고 이에 힘입어 세계최대인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값싼 노동력을 이용)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양의 자본을 투자하며 첨단산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이제는 노동집약 산업 외에 기술집약 산업 분야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빠른성장세를 지켜본 서구권 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이 2000년대를 전후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Roy 1994). 중국위협론은 특히 현실주의 이론 가운데서도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Al-Rodhan 2007). 공격적 현실주의에 의하면 강대국은 현상유지 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국력성장을 추구한다. 이는 힘을 키우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Mearsheimer 2006, 2010).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 국제체제에 불만이 있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더욱 수정주의적 움직임과 의도를 보일 것이라고 중국위협론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 예로,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중이다 (Krepinevich 2015). 특히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장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개시, 중국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 현대화 및 해군력 강화, 전랑외교(World Warrior Diplomacy) 시행¹⁾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투사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Shambaugh 2021, 308-311, 338).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위협론과 달리 중국은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므로 이웃국들과의 영토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Gallagher 1994). 그리고 이웃국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hambaugh 2005; Ravenhill 2006).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아직 미국과 맞설만큼 국력이 성장하지 못하였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동조(align)하게끔 끌어들이기 위한 연성국력(soft power)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현존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Zhao 2018). 특히 마지막 주장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기반으로 중국은 활발한 무역과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들의 군비증강과 핵개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의 말대로 세계화, 시장경제체제,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습득함으로써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길을 걷고 대외적으로는 현 국제체제에 대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Allison 2017b).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은 시진핑이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유엔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제평화유지(global peacekeeping), 기후변화 및 팬데믹 극복, 재해구호, 대(對) 테러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hambaugh 2021, 310).

과연 중국이 미국과의 국력차이를 좁힐수록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국제체제를 실현하려

1) “전랑외교란 국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이 적대 국가를 응대하는 외교성향을 지칭한다.” (은진석, 이경태 2022)

는 현상변경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일지 기존 체제에 만족하는 현상유지국의 자세를 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원인을 쇠퇴하는 기존 강대국(미국)의 행동에서 찾든 부상하는 신흥강대국(중국)에서 찾든 최근들어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면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시작한 건 오바마 행정부2기가 출범한 2013년 전후로 본다. 이 시기에 시작한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정책을 내세우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시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계획과 같이 유라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정차근 2019, 213). 또한,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화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도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자신의 인근 해안에서 계속해서 팽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을 내세우며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 중국과 갈등을 빚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마침내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 혹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하였다.

이후 2017년부터 등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3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미국이 기술유출 방지, 기술 관련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Huawei)가 미국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으로써 점점 더 가열되었다. 2020년 1월 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다만 중국의 첨단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미중 간 인공지능, 반도체, 5G, 바이오 등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20년 들어서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책임론을 제기하였으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비난하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하고, 중국기업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미중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더불어, "미국 지적재산권과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더욱 나빠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동안 미중 간에는 계속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잦은 충돌을 겪었다.

2021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완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잠시 돌았으나 이후 바이든의 행보를 보면 전임자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바이든은 무역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참여국가들²⁾과의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2018년 5월에 확대 재편하여 탄생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충돌한다(박휘락 2020, 116).

최근 2022년 8월 2일에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은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함과 동시에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만을 위협하는 등 미중 간 대립은 첨예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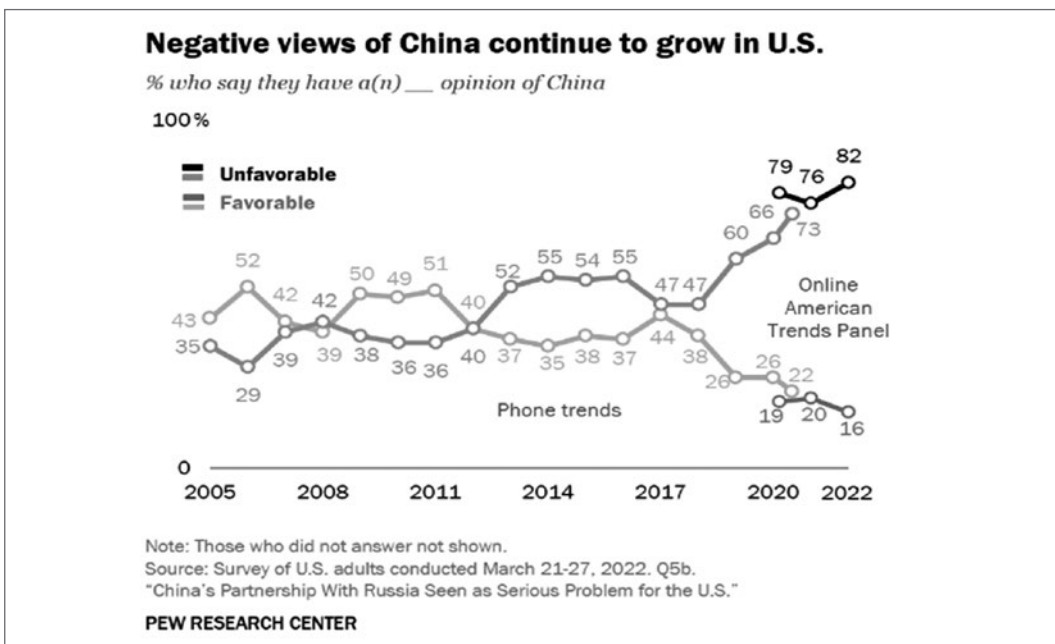


그림2. 미국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 변화 추이³⁾

2) 미국과 더불어 인도, 일본, 호주

3) Huang, Silver, and Clancy. 2022. "China's Partnership With Russia Seen as Serious Problem for the U.S." Pew Research Center (April 28). Accessed at: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4/28/chinas-partnership-with-russia-seen-as-serious-problem-for-the-us/>.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구도를 반영하듯 미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림 2>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매년 제공하는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미국인들 사이에서 2011년까지는 중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점차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에는 그 격차가 점점 커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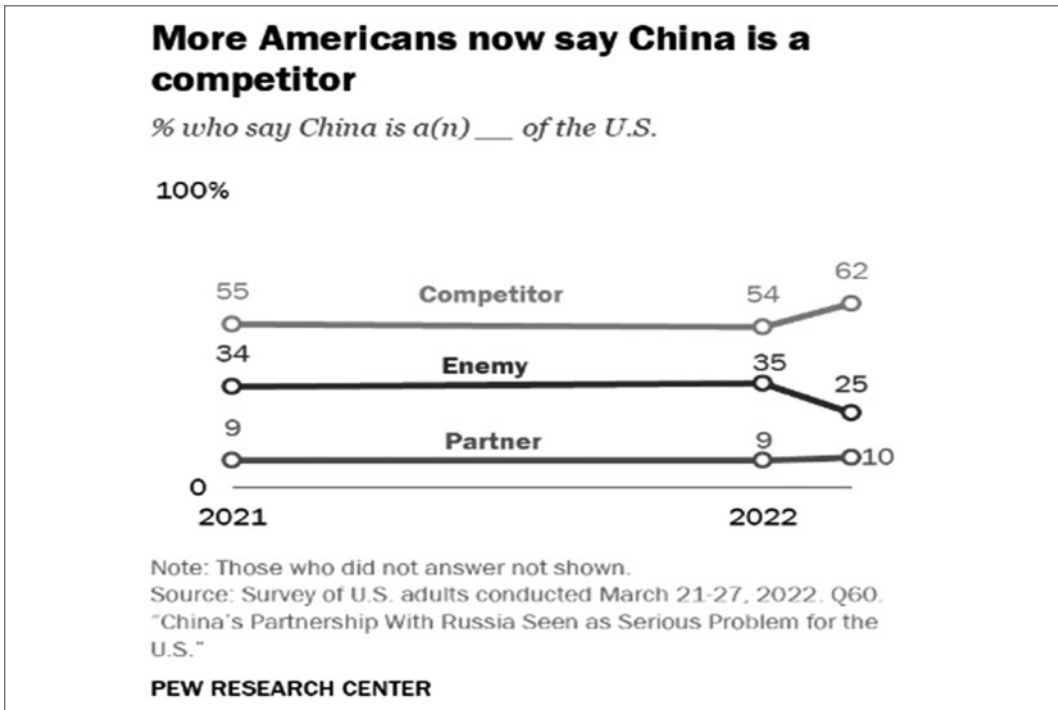


그림3. 중국을 경쟁국로 바라보는 미국여론 변화 추이⁴⁾

다만 <그림 3>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중국을 적(enemy)보다는 경쟁자(competitor)로 바라보는 비율이 더 높다. 이에 따라 당장에 미국이 여론에 따라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두 강대국 간의 정면 군사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남중국해, 대만해협, 혹은 한반도 문제에 두 강대국이 연루될 경우 군사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4) Ibid.

2. 미중 관계가 남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이처럼 미중 간의 갈등과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 혹은 한반도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 외에도 한국과 북한이 미중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고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이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비록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강행, 이에 대한 중국의 자제요청 및 유엔제재 결의안 찬성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Kim MH 2017) 북중은 여전히 순망치한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과 김씨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한미동맹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Lee 2021). 비록 한국이 199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한중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등한시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과 비대칭적 피후견-후견(patron-client)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과 비교하여 양자관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방기(abandon) 혹은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방기는 후견국이 기존 피후견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피후견국의 적대국의 편에서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는 미중과 남북 관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이 경우 피후견국이 필요로 할 때 후견국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피후견국을 지지하지 않는 수준의 방기가 벌어질 수 있다(Snyder 1984, 466). 반면 연루의 경우 후견국과 타국 간의 갈등에 피후견국도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Snyder 1984, 467). 다만 나날이 격해지고 있는 오늘날 미중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방기 당하는 경우보다는 미중 갈등에 연루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은 한국에게도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모두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미국에 의해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쿼드 참여 문제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한

국이 자신을 배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반도체 동맹 ‘칩(Chip) 4’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미국과는 (최근 몇 차례 대화 시도가 오고갔지만 전반적으로는)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미중 갈등에 연루되어도 한국보다는 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미중 갈등에 연루되어 자신의 물적 자원을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남과 북이 미중 간의 갈등에 연루되든 결국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할 가설을 다음과 같다:

가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IV.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본 미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미중 양국 관계의 (갈등 및 협력추세) 변화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통계분석을 통해서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고 이후 두 번째 통계분석은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찾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1. 데이터와 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시기별로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를 수치화 하기 위해 빅데이터인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을 사용하였다. GDELT는 언론기사를 수집 및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국가 간 관계의 변화추세를 다른 데이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DELT는 국가 간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고 각 사건별로 행위자, 대상, 사건의 종류, 협력/갈등의 수준(-10에서 +10 사이의 수치를 부여하는 Goldstein Scale)을 분류하여 저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해 동안 두 국가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의 협력/갈등 수준을 연평균으로 묶어 통계분석에 활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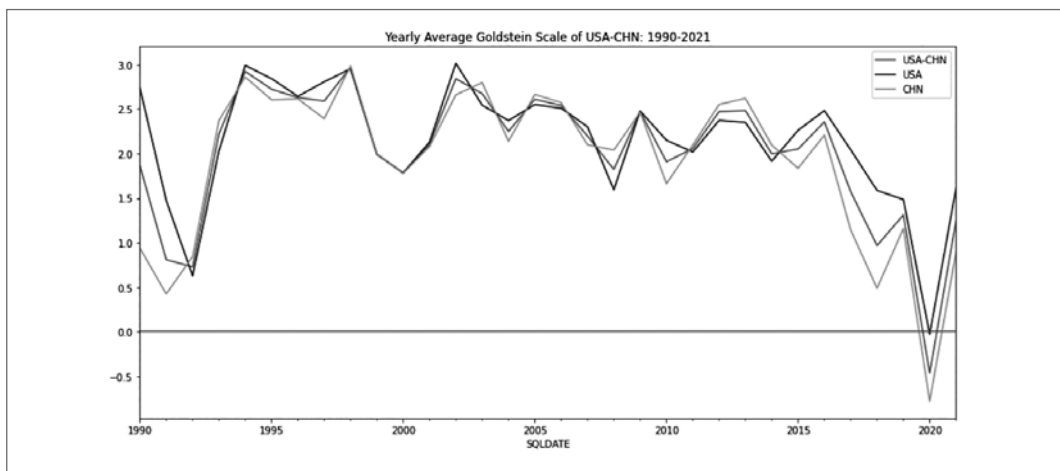


그림1. 미중 관계 변화 양상, 1990-2021

(출처: GDELT)

<표 1> 미중 간 연도별 사건 수

(출처: GDELT)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1990	1221	1999	32642	2008	1193	2017	2932
1991	2698	2000	314	2009	5828	2018	2144
1992	1517	2001	5784	2010	4864	2019	2174
1993	3990	2002	2736	2011	3950	2020	3269
1994	4810	2003	5224	2012	4635	2021	2850
1995	11438	2004	2331	2013	3426		
1996	15762	2005	2376	2014	3891		
1997	21204	2006	1027	2015	5454		
1998	17575	2007	1153	2016	463		

<그림 4>는 (첫 번째 통계분석의 종속변수인) 미중 간의 협력/갈등 수준이 지난 약 3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2010년대 후반부터 미중 간 전략경쟁,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외에 <표 1>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미중 간에 발생했던 사건의 수를 보여준다.

<그림 4>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은 지난 약 30여 년간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준 변수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비율,⁵⁾ 미국 공화당 집권시기(1990-1992, 2001-2008, 2017-2020), 시진핑 집권시기(2013-2020), 연도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량 (연도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량), 연도별 미중 간 힘의 비율(China-to-US power ratio),⁶⁾ 그리고 연도별 중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선정하였다.⁷⁾

5) China (n.d.). Gallup. Accessed at: <https://news.gallup.com/poll/1627/china.aspx> (2022년 7월 15일). 1990, 1992, 1993, 1995년 결측치는 전년도 수치로 대체함.

6) 연도별 중국과 미국 간 힘의 비율에서 힘(power)은 두 국가의 GDP, 구매력 기준 GDP, 군비지출, 인구규모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하나로 묶는 요약지수를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국가별 GDP, 1인당 GDP, 군비지출, 인구 데이터는 World Bank에서 2020년까지만 제공하므로 통계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하였다(2021년 제외).

7)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중국은 결국 미국의 국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쇠퇴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French 2022). 고령화의 경우 국가 간 관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Haas 2007). 첫째, 고령화로 인해 향후 국력이 쇠퇴할 것으로 지도자가 간주할 경우 그 국가는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 국가의 국력이 최정점에 이른 시기는 현재라고 지도자가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화로 군대가 약해지고 국가재정이 악화될 경우 그 국가는 주변국을 향해 보다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어서 미중관계의 긍정 및 부정 여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림 5>에 나타난 지난 약 30여 년간의 남북관계 협력/갈등 수준이 변화양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남북관계는 변동폭이 매우 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남북 간에 발생했던 사건의 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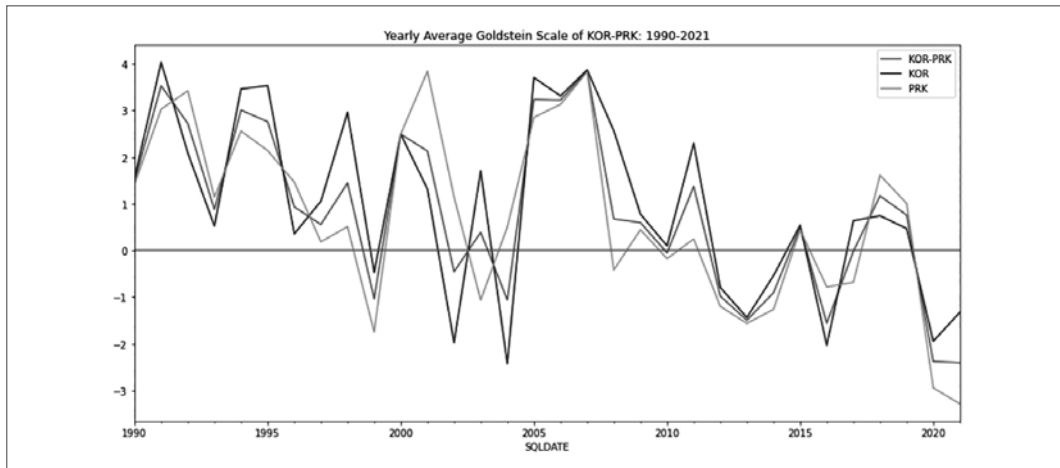


그림5. 남북관계 변화 양상, 1990-2021 (출처: GDELT)

<표 2> 남북 간 연도별 사건 수 (출처: GDELT)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연도	사건 수
1990	1443	1999	2242	2008	71	2017	515
1991	2584	2000	6290	2009	707	2018	982
1992	703	2001	248	2010	540	2019	239
1993	798	2002	312	2011	447	2020	141
1994	3959	2003	336	2012	210	2021	60
1995	1026	2004	270	2013	183		
1996	1702	2005	640	2014	171		
1997	2318	2006	63	2015	259		
1998	1258	2007	433	2016	448		

<그림 4>와 <그림 5>에서 살펴본 미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정확한 수치는 <표 3>의 결과와 같다.

<표 3> 연도별 남북관계와 미중관계의 갈등/협력 수치

연도	남북관계	남→북 관계	북→남 관계	미중관계	미→중 관계	중→미 관계
1990	1.482	1.556	1.419	1.864	2.735	0.938
1991	3.529	4.032	3.026	0.808	1.473	0.424
1992	2.721	2.090	3.422	0.727	0.627	0.842
1993	0.876	0.522	1.142	2.218	2.026	2.368
1994	3.007	3.462	2.559	2.921	2.989	2.857
1995	2.759	3.533	2.140	2.720	2.839	2.602
1996	0.933	0.355	1.463	2.627	2.640	2.613
1997	0.556	1.054	0.186	2.588	2.803	2.390
1998	1.447	2.962	0.510	2.967	2.951	2.982
1999	-1.036	-0.473	-1.750	1.991	1.989	1.993
2000	2.492	2.491	2.493	1.780	1.781	1.779
2001	2.129	1.314	3.840	2.103	2.128	2.077
2002	-0.456	-1.980	1.147	2.838	3.012	2.658
2003	0.388	1.709	-1.065	2.671	2.542	2.795
2004	-1.060	-2.425	0.500	2.246	2.368	2.136
2005	3.235	3.703	2.852	2.607	2.549	2.662
2006	3.222	3.313	3.129	2.539	2.507	2.570
2007	3.850	3.869	3.830	2.196	2.299	2.098
2008	0.675	2.565	-0.418	1.821	1.592	2.038
2009	0.597	0.778	0.444	2.470	2.475	2.463
2010	-0.055	0.098	-0.179	1.907	2.148	1.661
2011	1.373	2.295	0.244	2.055	2.016	2.095
2012	-0.979	-0.792	-1.201	2.469	2.371	2.550
2013	-1.499	-1.440	-1.566	2.481	2.348	2.619
2014	-0.905	-0.540	-1.265	1.995	1.912	2.094
2015	0.489	0.541	0.443	2.050	2.260	1.834
2016	-1.561	-2.035	-0.785	2.354	2.480	2.207
2017	-0.019	0.636	-0.682	1.571	2.041	1.140
2018	1.169	0.741	1.610	0.967	1.585	0.488
2019	0.755	0.469	1.008	1.311	1.483	1.158
2020	-2.379	-1.946	-2.948	-0.463	-0.027	-0.780
2021	-2.405	-1.326	-3.288	1.246	1.610	0.894

<그림 5>와 <표 3>에 나타난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 미국의 대중 행동, 중국의 대미 행동 외에도 미중 간 힘의 격차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남과 북 국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도별 한국 정권의 정치적 성향(진보/보

수),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수준(1인당 GDP)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북한 관련 국내 변수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없었다.)

2. 통계분석

본 통계분석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각 연도별 관측치 간의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선형회귀모델 대신 Prais-Winsten 방식을 사용하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모델을 사용하였다.⁸⁾

<표 4>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GLS분석 결과

변수	(1)	(2)	(3)
	미중관계	미→중 행동 및 태도	중→미 행동 및 태도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 비율	0.054* (0.022)	0.056** (0.021)	0.049* (0.026)
시진핑 집권시기	0.562 (0.400)	0.501 (0.363)	0.617 (0.464)
미국 공화당 정권시기	-0.868*** (0.193)	-0.777*** (0.274)	-0.881*** (0.189)
(log)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량	0.865*** (0.211)	0.651** (0.268)	1.007*** (0.219)
중국 대 미국 힘의 비율	-0.658** (0.256)	-0.607* (0.298)	-0.652** (0.264)
중국 인구 65세 이상 비율	-0.046 (0.222)	0.060 (0.238)	-0.175 (0.245)
상수	-9.781*** (3.011)	-8.104* (4.235)	-10.323*** (2.980)
N	30	30	30
R-Squared	0.7435	0.6263	0.7741
Durbin-Watson statistic (original)	1.8983	1.8757	1.9882
Durbin-Watson statistic (transformed)	1.9530	1.9391	1.9953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0$

8) 본 모델에서는 Durbin-Watson statistic (transformed)가 2.0에 가까울수록 연도별 관측치 간 자기상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미중 관계,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미국 내 대중여론이 미중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집권 시기에 미중관계가 다른 시기보다 특별히 부정적이라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국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지 H.W. 부시(제41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제43대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미중 관계가 클린턴과 오바마 시기보다 부정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줄어들면 이는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국 간 힘의 격차가 줄어들에 따라 (세력전이 이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쇠퇴하는 패권국과 신흥도전국 사이에 갈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지난 약 30여 년간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향후 미중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량 (혹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량) 증가는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는 미국 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 변수가 미중 관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막대한 양의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대중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변수에 관한 GLS분석 결과

변수	(1)	(2)	(3)
	남북관계	남→북 행동 및 태도	북→남 행동 및 태도
미중관계	-0.5778 (0.467)	-0.718 (0.552)	-0.310 (0.554)
중국 대 미국 힘의 비율	-9.101** (3.342)	-10.067** (4.304)	-8.080** (2.981)
한국 진보정권 시기	-0.313 (0.587)	-0.695 (0.678)	0.167 (0.736)

(log) 한국 1인당 GDP	2.272 (1.477)	2.760 (1.962)	1.700 (1.255)
상수	-17.181 12.955	-21.030 16.930	-12.754 11.177
N	31	31	31
R-Squared	0.3842	0.3644	0.3087
Durbin-Watson statistic (original)	2.0482	2.3486	1.1799
Durbin-Watson statistic (transformed)	2.0220	2.0897	1.859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0$

그렇다면 미중관계는 과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설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관계는 미중관계의 긍정/부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단기적인 미중관계의 변화양상 보다는 오히려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와 같은 보다 근원적이면서 국제체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에 남북관계는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는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과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행동(북→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힘을 지니게 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한미동맹을 향한 도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쇠퇴와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연구와 경험적 증거취합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변수에 관한 GLS분석 결과

변수	(1)	(2)	(3)
	남북관계	남→북 행동 및 태도	북→남 행동 및 태도
미→중 행동 및 태도	-0.277 (0.452)	-0.492 (0.510)	-0.019 (0.595)
중국 대 미국 힘의 비율	-7.392**	-8.337**	-6.911**

	(3.073)	(3.733)	(3.177)
한국 진보정권 시기	-0.100	-0.519	0.335
	(0.613)	(0.676)	(0.771)
(log) 한국 1인당 GDP	1.583	2.041	1.270
	(1.335)	(1.713)	(1.257)
상수	-11.663	-15.029	-9.593
	(12.104)	(15.027)	(11.519)
N	31	31	31
R-Squared	0.3211	0.3158	0.2770
Durbin-Watson statistic (original)	1.9101	2.2664	1.669
Durbin-Watson statistic (transformation)	1.9721	2.0472	1.8135

괄호 안은 표준오차 ***p < 0.01, **p < 0.05, *p < 0.10

<표 6>에서는 미중관계를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과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으로 분리하여 각 변수가 남북관계,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행동(북→남)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만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과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82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 6>의 모델들에는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변수만 포함하였다.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 변수에 따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는 <표 5>의 결과와 비슷하다. 즉, 남북관계,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행동(북→남)은 미국의 대중 행동(미→중)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미 변수에 관한 GLS분석 결과

변수	(1)	(2)	(3)
	남북관계	남→북 행동 및 태도	북→남 행동 및 태도
중→미 행동 및 태도	-0.666†	-0.726†	-0.452
	0.412	(0.484)	(0.470)
중국 대 미국 힘의 비율	-10.241**	-10.915**	-9.134***
	3.587	4.550	(2.962)
한국 진보정권 시기	-0.433	-0.771	0.044

	(0.580)	(0.671)	(0.723)
(log) 한국 1인당 GDP	2.776*	3.146†	2.144†
	(1.608)	(2.083)	(1.330)
상수	-21.574	-24.547	-16.466
	(14.024)	(18.056)	(11.744)
N	31	31	31
R-Squared	0.4295	0.3899	0.3420
Durbin-Watson statistic (original)	2.1267	2.3869	1.8703
Durbin-Watson statistic (transformation)	2.0656	2.1074	1.9021

괄호 안은 표준오차 ***p < 0.01, **p < 0.05, *p < 0.10, †p < 0.15

<표 7>에서는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이 각각 남북관계,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행동(북→남)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대중행동(미→중)과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표 7>의 결과 역시 <표 6>과 비슷하다. 즉, 남북관계,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행동(북→남)은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7>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결과는 중국의 대미 행동(중→미)과 남북관계,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행동(남→북)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물론 상관관계의 유의미함 수준은 $p < 0.15$ 로 약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자외에 의해 또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이용,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이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은 이 기회에 북한을 압박해도 중국이 대응하지 않으리라 한국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추후 기존 연구와 경험적 증거취합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남북관계는 (미국 내 대중여론, 공화당 집권 여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량 등에 영향을 받는) 미중관계의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변화 양상과 속도라는 보다 근본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힘의 변화에 주목하여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중-한과 미중-북 관계 (2018-2022)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계 분석에 이어 본 장에서는 언론기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했수로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의 어떤 이슈가 화두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텍스트 분석은 국내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언론기사는 뉴스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 <https://www.big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54종의 언론기사를 제공하는데 본 분석에는 국내 메이저 언론지 가운데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총 6개 언론사 기사만을 사용하였다. 언론사는 특정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선정하려 하였다.

1.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국



그림6. 2018년 (분석대상 기사: 7,165건)

2018년에는 6월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정상회담”이 빈도 높게 한국 언론에 등장하였음을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비핵화”와 더불어 “중전선언”도 이슈였다.

그림 7을 통해 2019년에 빈도 높게 등장한 단어를 살펴보면, “비핵화”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눈에 띈다. 특히 “정상회담”은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무역분쟁”과 “반도체”가 2019년 한국언론에 화두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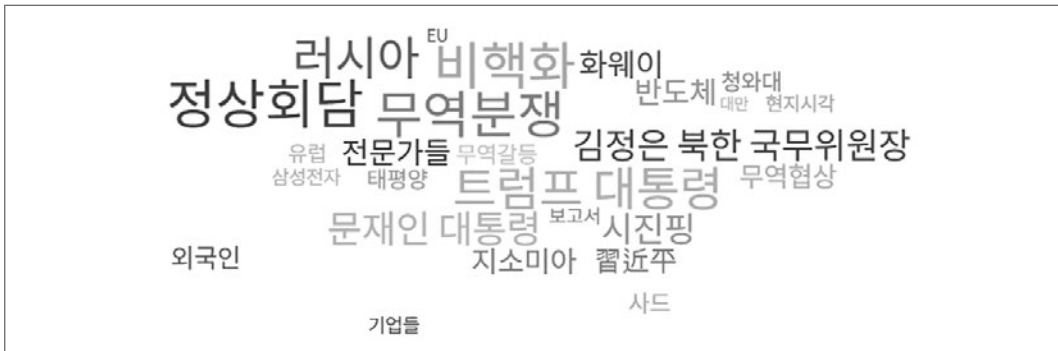


그림7. 2019년 (분석대상 기사: 7,996건)



그림8. 2020년 (분석대상 기사: 6,798건)

2020년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코로나19”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보다 한국언론에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음을 그림 8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중에 격화하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와 같은 단어 역시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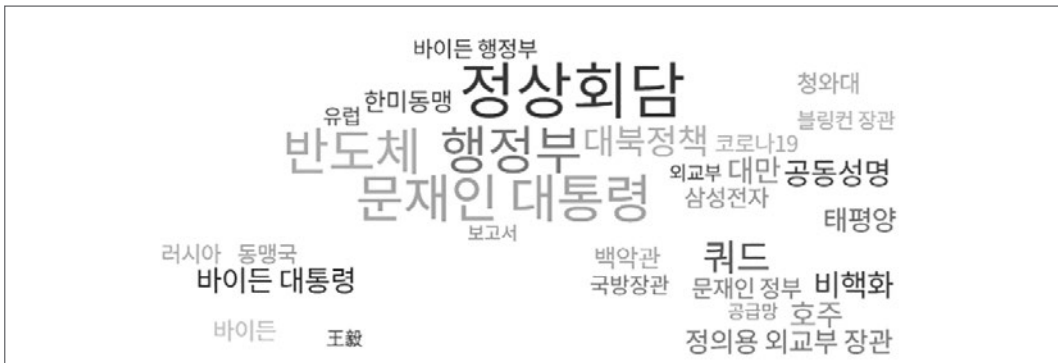


그림9. 2021년 (분석대상 기사: 6,315건)

그림 9로 살펴본 2021년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반도체” 등과 더불어 “대북정책”, “비핵화”와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이는 미중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에 관심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의 경우 2021년 5월에 있었던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쿼드”가 빈도높게 등장함에 따라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0. 2022년 (8월 3일까지) (분석대상 기사: 1,980건)

그림 10은 2022년 미중간 3국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에 높은 빈도로 언급된 단어를 나타낸다. 2022년 5월 한국에는 정권교체가 있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단어가 등장하였으며 신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경제프레임워크”,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또한,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 단어와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대만” 또한 높은 빈도로 한국 언론에 등장하였다. “정상회담”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있었던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2년 한국 언론기사에 빈도 높게 등장한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한미는 가까워지는 반면 한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미중 사이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국언론에 자주 언급된 단어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중 디커플링이 최근 이슈가 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언론에 “반도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1)에는 “대북정책”,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급망”이 언급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2.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북한



그림11. 2018년 (분석대상 기사: 6,832건)

미중북 3국과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림 11-14에 나타나듯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실험”과 더불어 “비핵화”, “대북제재”, “종전선언”,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정상회담”과 같은 단어가 빈도 높게 등장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하였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12. 2019년 (분석대상 기사: 5,513건)

다만 한국언론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미와 북미관계와 관련된 단어가 빈도 높게 등장하는 반면 한중과 북중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한국의 언론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성향일 수도 있고 혹은 연구과정에서 6개의 한국언론만을 선정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이용해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중은 각각 한국,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또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한반도에 정치·경제·안보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 통계분석 결과(<표 4>) 미중관계는 미국내 대중여론, 공화당 집권,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량 감소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 번째 통계분석 결과(<표 5>)를 살펴보면,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 감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인 미중관계의 변화보다 근본적인 (국제체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양상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두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내 대중여론, 공화당/민주당 집권여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폭 등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여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한국 언론기사를 텍스트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관심사는 “비핵화”, “종전선언” 등에서(2018-2021) “IPEF”, “반도체”, “공급망”으로(2022)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미중 사이에서 북한 관련해서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실험”, “비핵화”, “대북제재”, “종전선언”와 같은 단어가 빈도 높게 등장하였다. 즉, 미중 사이에서 향후 한국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는 행보를,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나아가 중국을 지지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⁹⁾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쇠퇴로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는 한국의 안보불안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은 북중 세력의 힘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게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미중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지속될 경우 남과 북은 이들 간의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맞춰 한국은 두 강대국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9) 한국언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은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함을 과시하고 이번 사건 관련하여 중국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Shin 2022).

참고문헌

- 박휘락. 2020.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합의 분석: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 105-129.
- 은진석, 이경태. “국제관계의 맥락과 네트워크 중심성: 중국의 전랑외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집 1호, 67-88.
- 정차근. “미·중 관계에서 본 B. Obama의 재균형 정책 등장의 배경 - 아시아와 한반도 지정학과 관련하여.” 통일전략 제19권 2호, 201-229.
- Allison, Graham. 2017a.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 Allison, Graham. 2017b. “China vs. America: Managing the Next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96(5), 80-89.
- Al-Rodhan, Khalid R. 2007. ‘A critique of the China threat theory: a systematic analysis’, *Asian Perspective* 31(3), 41-66.
- BIG Kinds: News BigData & Analysis*. n.d.. 한국언론진흥재단. Accessed at: <https://www.bigkinds.or.kr> (August 1, 2022).
- China n.d.. *Gallup*. Accessed at: <https://news.gallup.com/poll/1627/china.aspx> (July 15, 2022).
- French, Howard W. 2022. “A Shrinking China Can’t Overtake America But if U.S. democracy continues to decay, what’s the point of being on top?” *Foreign Policy* (July 29). Accessed at: <https://foreignpolicy.com/2022/07/29/china-population-decline-demographics-economic-growth/> (August 1, 2022).
- Gallagher, Michael G. 1994.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19(1), 169-194.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as, Mark L. 2007. “A geriatric peace? The future of U.S. power in a world of aging popu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2(1), 112-147.
- Huang, Silver, and Clancy. 2022. “China’s Partnership With Russia Seen as Serious Problem for the U.S.” *Pew Research Center* (April 28). Accessed at: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4/28/chinas-partnership-with-russia-seen-as-serious-problem->

- for-the-us/ (August 1, 2022).
- Kim, Min-hyung. 2017. "Cracks in the Blood-Shared Alliance? Explaining Strained PRC-DPRK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World." *Pacific Focus* 32(1), 109-128.
- Krepinevich Jr., Andrew F. 2015.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 94(2), 78-86.
- Lee, Yongjae. 2021. "Why China Has Supported North Korea: An Asymmetrical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rom 1995 to 2016."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4), 715-733.
- Mearsheimer, John J.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 160-162.
- _____.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381-396.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uch, Carsten. 2017. "Challenging the Power Consensus: GDP, CINC, and Power Transition Theory." *Security Studies* 26(4), 642-664.
- Ravenhill, John. 2006. "Is China an economic threat to Southeast Asia?" *Asian Survey* 46(5), 653-674
- Roy, Denny. 1994.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149-68.
- Shambaugh, David. 2021. *China's Leaders: From Mao to Now*. Medford, MA: Polity Press.
- Shin, Mitch. 2022. "North Korea Denounces Pelosi's Visit to Taiwan." *The Diplomat*. (August 3). Accessed at: <https://thediplomat.com/2022/08/north-korea-denounces-pelosis-visit-to-taiwan/>. (August 8, 2022).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461-495.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World Bank Indicator*. n.d.. Accessed at: 국가별 명목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국가별 구매력 기준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PP.CD>; 국가별 균비지출.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MS.MIL.XPND.CD>; 국가별 인구규모.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 (August 1, 2022).

Abstract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intensifying recently. The two great powers are competing in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diplomacy, security, and technology. They also show conflict in regions such as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Taiwan Strait,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cause of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would be the rapidly shrinking power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dynamics between the two great superpowers because it is bound to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 has close ties with both the US and China. Also, while South Korea has been the US's military ally for decades,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Meanwhile,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is constantly seeking negotiations with the US over its nuclear weapons. As such, these four closely connected states are in a situation in which they can be involved, entrapped in conflicts that they did not initi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conflict/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ositively or negatively impact inter-Korean relations. The period will be limited to 1990-2021. Changes in US-China and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measured using GDELT - big data based on news media articles and report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whether the US-China relationship affect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text analysis as well a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US-China relations are affected by public opinion in the US, the US ruling party, the US trade surplus with China, and changes in

the US-China power gap.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more influenced by the power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than whether the US-China relationship is positive or neg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hift in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when preparing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maintain positive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 US-Chin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big data, statistical analysis, text analysis



우)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77-24(중문동)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www.jpi.or.kr